

손흥민·황희찬...1년만에 태극전사 뭉친다



손흥민

벤투호 코로나 뚫고 다음달 15일 멕시코와 유럽에서 해외 원정 평가전
황희찬·권창훈 등 해외파 총출동...내년 월드컵 예선 앞두고 전력 점검

손흥민(토트넘) 등 유럽파가 가세한 최정예 태극전사들이 코로나19를 뚫고 약 1년 만에 해외 원정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KFA)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15일 오전 5시(한국시간)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오스트리아에서 원정 평가전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벤투호가 A매치를 치르는 건 지난해 12월 18일 부산에서 일본과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경기를 치른 뒤 333일 만이다. 이번 멕시코전은 대표팀이 362일, 약 1년 만에 갖는 해외 원정 평가전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19일 브라질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평가전을 치른 게 벤투호의 마지막 해외 경기였다. KFA는 코로나19 탓에 국가 간 이동이 어려워 국내에서 평가전을 치르기 힘들어지며 유럽 원정 평가전을 준비해왔다. 전한진 KFA 사무총장은 "유럽축구연맹(UEFA) 네이션스리그가 진행 중이어서 한국이 유럽팀과 경기를 치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멕시코는

우리에게 최상의 친선경기 파트너"라고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1위인 멕시코는 1994 미국 대회부터 2018 러시아 대회까지 7회 연속 월드컵 16강에 오른 강팀이다. 한국은 멕시코와의 A매치 상대 전적에서 4승 2무 7패로 열세다. 가장 최근 맞대결은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으로 한국이 멕시코에 1-2로 졌다.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로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활약한 이르빙 로사노(나폴리)가 꼽힌다. 최근 네덜란드와의 평가전(1-0 멕시코 승) 결승골을 넣은 라울 히메네스(울버햄프턴) 역시 요주의 선수다. 10월 A매치 기간 K리거로 구성된 대표팀을 이끌고 올림픽 대표팀과 친선경기를 치르며 새 선수를 데스틴한 벤투 감독은, 11월에는 해외파를 총동원한 정예 멤버로 나선다. 손흥민, 황희찬(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 유럽파들이 새 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오랜만에 그라운드를 누빈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이 오는 11월 15일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와 오스트리아에서 원정 평가전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은 대표팀 새 유니폼을 입은 백승호(왼쪽부터), 권창훈, 황희찬. /연합뉴스

내년 재개될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을 앞두고 '최강 전력'을 구축할 소중한 기회다. 대표팀은 11월 A매치 기간에 유럽에서 계속 머물며 두 차례 친선경기를 치러 조직력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멕시코에 이은 두 번째 상대는 중동 지역팀으로, 계약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축구협회는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핸드볼 청소년대표 이슬기 영입



이슬기

신인드래프트서 박지영도 지명
젊은 피 수혈로 팀 활력소 기대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조대여고 이슬기와 서울 휘경여고 박지영을 영입했다.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은 지난 12일 열린 '2021 여자실업핸드볼 신인드래프트'에서 이들 2명을 지명했다. 현장에서 진행된 지명순서 추첨에서 6순위 지명권을 확보한 광주도시공사는 1라운드에서 광주 조대여고 소속 이슬기(LB)를 지명했으며, 3라운드에서는 서울 휘경여고의 박지영(RB)을 지명했다. 이슬기는 여자청소년대표(2019~2020)로 활약했으며 개인 돌파력과 중거리슛에서 강점을 보이는 선수다. 2019아시아여자청소년선수권대회 우승, 2019핸드볼코리아 전국 중고 선수권대회에서 조대여고가 2위를 차지하는데 기여했다. 박지영은 다양한 포지션을 오가는 전천후 선수로 정평이 나았으며, 서울휘경여고의 2019 제100



박지영

회 전국체전 3위를 견인한 주역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오는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2020-2021 SK핸드볼코리아 리그' 출전을 위해 선배들과 합동훈련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새로운 선수들이 팀의 활력소가 되어 주길 바란다"면서 "11월 말부터 시작되는 SK코리아핸드볼 리그에서 전 시즌보다 더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신인들이 빠르게 적응하여 기존 선수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체육회는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배구 17일 개막...6개월 레이스 돌입

겨울철 스포츠의 대명사인 프로배구가 17일 오후 2시 남자부 우리카드-대한항공(서울 장충체육관), 여자부 현대건설-GS칼텍스(수원체육관) 경기로 6개월간의 레이스를 시작한다. 17번째 시즌인 도드람 2020-2021 V리그 남녀 개막전은 지난 시즌 1, 2위 팀끼리의 대결로 편성됐다. 남자부 7개 구단, 여자부 6개 구단은 내년 3월 17일까지 정규리그 6라운드를 치러 '봄 배구'에 출전할 팀을 결정한다. 규정에 큰 변화가 없어 포스트시즌에 오를 팀의 자격도 예년과 같다. 남자부 정규리그 4위와 3위의 승점 차가 3 이내면 준플레이오프 단판 대결이 열린다. 격차가 승점 3을 초과하면 준플레이오프는 열리지 않는다. 정규리그 2위와 3위가 격돌하는 플레이오프는 남녀 모두 3전 2승제로 치른다. 정규리그 1위와 플레이오프 승자가 대결하는 남녀 챔피언결정전은 5전 3승제로 열린다. 전력에 큰 변동이 없는 대한항공과 세계적인 공격수 김연경을 11년 만에 다시 품은 흥국생명이가

장 강력한 남녀 우승 후보로 꼽힌다. 우리카드와 현대캐피탈(남자부), GS칼텍스와 KGC인삼공사(여자부)가 두 팀의 독주에 제동을 걸 후보로 평가받는다.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에 따라 '비대면'으로 선발된 외국인 선수들의 기량이 올 시즌 판세를 좌우할 변수로도 거론된다. 남자부에선 노우모리 케이타(KB손해보험·말리), 바토즈 크라이첵(삼성화재·폴란드), 카일 러셀(한국전력·미국) 세 선수가 한국에 새로 와 안드레스 비에나(대한항공), 다우니 오켈로(현대캐피탈), 알렉산드리 페헤이라(우리카드), 펠리페 알톤 반데로(OK금융그룹) 등 V리그 유경험자들과 실력을 다툰다. 여자부에선 새 얼굴과 유경험자가 세 명씩 나선다. 안나라자레바(IBK기업은행·러시아), 헬렌 루소(현대건설·벨기에), 켈시 페인(도로공사·미국)은 V리그 데뷔를 앞뒀고, 메레타 러츠(GS칼텍스), 발렌티나 디우프(KGC인삼공사), 루시아 프레스코(흥국생명)는 한국 무대 두 시즌째를 맞이한다. /연합뉴스

산투스 복귀 호비뉴 월급은 '단돈 3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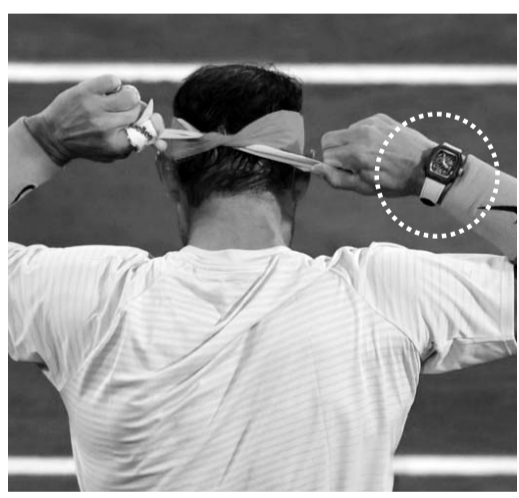
재정난 친정팀 뚫고 싶어 계약
레알 마드리드(스페인)와 맨체스터 시티(잉글랜드)에서 뛰었던 브라질 출신 '베테랑 골잡이' 호비뉴(36)가 단돈 31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재정난에 부딪힌 친정팀 산투스(브라질) 유니폼을 입었다. 축구전문 사이트 ESPN FC는 13일 "호비뉴가 산투스와 5개월 계약을 했다"라며 "호비뉴는 브라질의 최저임금보다 조금 높은 월급 1500헤알(약 31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시즌 이스탄불 바샤셰히르(터키)에서 뛰면서 팀의 터키 정규리그 역대 첫 우승을 함께 했던 호비뉴는 계약 만료와 함께 자유계약(F.A) 신분으로 산투스에 입단했다. 15살 때인 1999년 브라질의 축구황제 펠레의 눈에 띄어 산투스 유스팀에 발탁된 호비뉴는 2002년

산투스를 통해 프로에 데뷔하며 성공의 길을 걸었다. 2005년 7월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해 루이스 피구(포르투갈)의 등번호인 10번을 이어받은 호비뉴는 2009년 9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시티로 이적해 2시즌을 보냈다. 2010년 산투스로 잠시 임대로 복귀했던 호비뉴는 AC밀란(이탈리아), 광저우 헝다(중국), 아틀레티쿠 마드리드(브라질), 시바스포르, 바샤셰히르(이성 터키) 등에서 뛰었다. 그가 산투스를 선택한 이유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친정팀을 돕고 싶어서다. 산투스는 재정난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이적 금지 제재를 앞두고 있다. 호비뉴는 "산투스에서 좋은 추억이 많다"며 "산투스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도와줘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나달 우승 때 찬 손목시계 12억원...무게는 30그램

프랑스오픈 테니스대회에서 통산 13번 우승을 차지한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은 손목시계를 착용하고 경기에 뛰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그는 10년 전부터 스위스의 유명 시계 브랜드 리처드 밀과 후원 계약을 했는데, 나달이 출전하는 대회마다 착용한 시계의 가격이 화제가 되었다. 2015년 프랑스오픈에는 'RM 27-02'라는 모델의 시계를 착용했는데 가격이 85만달러, 당시 환율로 9억 4000만원에 이르는 고가였다. 2017년 US오픈에는 'RM 27-03'을 차고 나왔고, 이때 가격은 72만5000달러로 추정됐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13일 "올해 프랑스오픈에 나달이 착용한 손목시계(점선 안 사진)는 'RM 27-04' 모델로 가격은 105만달러(약 12억

원)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나달과 후원 계약 10주년을 맞아 발표한 이 시계는 무게가 30g밖에 되지 않는다. 경기 중에 시간을 확인할 일이 없는 나달로서는 홍보 목적으로 이 시계를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무게로 시계를 만들어야 한다. 나달은 경기 중에 착용하는 리처드 밀 시계에 대해 "이제는 거의 피부처럼 느껴진다"고 말한 바 있다. 포브스는 "이 RM 27-04는 50개 한정판으로 제작됐다"고 보도했다. 나달과 함께 남자 테니스의 '빅3'로 불리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로저 페더러(4위·스위스)도 시계 브랜드와 후원 계약을 맺고 있다.



조코비치는 세이코, 페더러는 롤렉스와 각각 후원 계약 중이지만 이들은 경기 중에는 손목시계를 착용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모든가그를만나다
<조카> 재직진
본조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담보, 다바
2관	안한지드
3관	애프터: 그 후 극장판 미니특공대: 행버거괴물의 습격
4관	담보, 다바
5관	국제수사
6관	담보
9관	폰조
7관 씨네카를	안녕까지 30분, 그린랜드, 나의 이름 피안에이차: 새로운 세계의 시작
8관 씨네카를	안녕까지 30분, 검객, 다바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GAC기획전시
경계의공간
2020. 9.1.(화) ~ 11.1.(일)
광주문화회관 갤러리

회관 개관29주년 기념 특별기획
백건우와 슈만
2020. 10. 20.(화) 19: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GAC기획공연 FOCUS
뮤지컬 라흐마니노프
2020. 10.16.(금) 19:30, 17.(토) 17:00
광주문화회관 소극장